

아버지의 초상(肖像)

강정실

1.

당초 미국 올 때의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나는 은퇴를 해야 하고, 지금쯤은 나머지 인생을 위한 여행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럴 생각으로 사십대 중반인데도 주위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행을 감행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만만치 않은 이곳에서 나는 도깨비라는 비아냥거림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러 군데의 비즈니스에 손을 댔다. 결국은 꿈쩍달짝 못하도록 나를 묶고 말았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그러고선 헛기침을 토해내며 나날을 죽이고 산다.



부산 출생. 수필시대 등단. 한국 및 미주한국문협 회원. 한국 및 미주사진작가협회 회원. 재미수필협회 회원. 청하문학 회원.

6년 전, 시애틀에서 생활할 때다.

“당신, 이곳에서 그만 일을 벌이고 LA로 내려갑시다.”

아들을 잊지 못하는 아내의 불멘 소리였다. 시애틀에 있는 대학에서 졸업반인 아들이 대학원을 LA로 결정할 때부터 아내는 같이 내려가자고 졸라댔다. 나중에는 즐겨찾던 집 근처 바닷가도 마다하고 바깥 출입이 뜸해지면서 우울증마저 생기는 것이었다. 남편은 늘 ‘참아 봐’ 라고만 할 뿐 온통 비즈니스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했다. 시간만 나면 아내는 한국에서 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딸과 긴 통화를 했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아 아들과 통화하는 것이 이제는 일과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남편의 존재가 성가실 뿐, 아내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거야?”

또 시작이다. 그래, 하루 빨리 남편의 세계를 벗어나라. 텅 빈 집에 둘만 있는 것도 곤혹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산다는 게 무슨 놀이도 아닌데, 다 큰 아들놈과 생활하기 위해 멀쩡한 것을 쪽박 내고 타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것이 섭섭했다.

먹고 살던 집과 비즈니스를 헐값에 처분하였다. 그리고는 붉은 빛의 수캐 한 마리와 함께 1번 국도를 이용하여 태양이 넘실거리는 LA로 출발했다. 자동차 너머로 출렁거리고 있는 태평양 진한 쪽빛 바다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2.

딸이 치대 본과 3학년 때다. 방학을 이용하여 올해도 LA에서 겨울

을 보냈겠다고 연락이 왔다. 자동차를 끌고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 그런데 몇 시간을 기다려도 공항 밖으로 나와야 할 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에다 확인 전화를 하였다. 정상 시간에 출국을 했다고 한다.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공항 이민국 사무실로 들어가서 딸에 관한 것을 문의했다.

이곳에 취업 목적으로 들어 왔으니 한국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뜻밖의 이야기다.

그게 무슨 말이나? 그 애는 학생이다. 처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방학을 이용하여 이곳에 왔다 간다. 딸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다.

딸이 감금되어 있는 사무실에 들어갔다. 의자에 앉아 울먹이고 있는 딸을 달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입국절차를 받고 있던 중에, 이민국 직원이 왕복비행기표를 보면서,

“아버지가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도와 줄 것인가?”

“그렇다.”

“그렇다면 일에 대한 돈을 받을 것인가?”

“그건 용돈이다. 받을 것이다.”

교묘한 질문에 넘어 간 것이다. 그렇다. 칼을 숨긴 얼굴로 미소를 띠면서 묻는 ‘실적 올리기’ 용 텃에 걸려든 것이다. 관광 비자는 용도대로 여행만 할 뿐이지, 딸이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다. 이미 그들은 딸의 여권에 붙어 있는 10년짜리 미국 방문비자를 임의대로 취소시켜 놓은 상태였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통사정을 했다. 막무가내였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니 입에서는 자꾸 한국말이 튀어 나와 스스로 화가 났다. 이민담당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그런 항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대로 처리했다면서 불법취업 할 목적으로 입국했었

다는 딸의 자인서를 내게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딸은 그들이 내놓은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는 말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했다.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인데도 그들은 딸의 강제 출국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 순간을 보고 있어야 하는 나는 역장이 무너졌다. 마치 대형 고기가 미끼를 낚아챌 때의 순간이 낚싯대로 옮겨지는 강한 전을 같은 것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런 수모를 받으려고 미국행을 결정했던 딸인가? 내가 선택한 길에 스스로 속박당하듯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의 조건도 함께 끌어안고 가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집으로 돌아 온 나는 베개를 베고 누웠다. 가슴이 답답해져 누워있기 힘들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몸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들개마냥 동네를 헤집고 다녔다.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날은 이미 어두워져 인적이 뜸했다. 소변이 마려웠다. 주변에는 식당이나 잡화점이 보이지 않았다. 백양나무 밑동에 몸을 붙이어 소변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솟았다. 심호흡을 하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불가능했다. 차라리 얼굴을 하늘로 쳐들었다. 칙칙한 나뭇잎에 초승달이 걸터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적요의 초승달에 대고 외쳤다.

“아버가 딸에게 용돈도 못주나? 니들은 자식도 없나? 에이— 똥같은 나라야.”

표정이 풀죽은 삼베옷처럼 초췌해진 아버지를 위로해주는 아내와 아들을 보며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3.

몇 달 전, 아침나절이다. 한국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리고는 어느 때처럼 재잘거린다.

“아빠,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또 얼마 전이다. 아들내위가 사무실로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아빠, 나! 미시건 주립대학 교수로 가게 돼요.”

어느 점쟁이가 날더러 올해부터 삼재(三災)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점괘에 틱까지 수복이 없어 주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기분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어온다. 지구 어느 모퉁이에서도 흐린 날 중에 개인 날도 있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는 마음속으로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같은 치과전공의 남편이라 살아가면서 싸움을 하더라도 서로의 이빨을 빼겠다는 막말은 하지 말고 아들딸 놓고 잘 살아라. 올 가을 ‘늙어가는 아비’가 너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나갈게.

그리고 한 살 위의 누나를 제치고 먼저 장가간 아들아, 대학 1학년 생인 너를 미국에 데려 왔을 때, 영어회화 때문에 잠을 자면서도 ‘심슨’의 TV 만화를 듣던 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구나. 걱정된다. 아직 서른도 안 된 나이로 미국 대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로 고심해야 하니 말이다. 그래도 학위취득 전에 학교가 결정되어 반갑다. 올 겨울, 너의 첫아기가 태어나면 ‘늙어가는 아비’는 일 년 삼백육십오 일을 네 어미의 눈치를 살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부터 인생의 황혼기는 편안하게 여행이나 하자고 줄곧 큰 소리쳤던 게 공수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속내를 꿰뚫기라도 하듯 아내는 능청을 뜬다.

“술이나 한잔해요.”

앞으로 서로의 시력은 더욱 떨어지고 이도 다 빠지겠지만, 그래도 옛 정을 생각해서 서로의 등을 토닥토닥 긁어 줄 그런 날들이 있겠지. 그때도 지금처럼 미안하지 않게 가끔 ‘술 한잔 하자’라는 농성을 떨어 줄까?

오줌에 적신 손자 손녀의 이부자리를 빠느라 바쁜 ‘늙은 어미’의 모습과 팔에 매달리는 애들에게 힘이 빠져 있는 ‘늙은 아비’의 얼굴을 미리 생각해 본다.

절규

고대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가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인 평온함과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이라면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아이콘(icon)이 되는 작품은 무엇일까? 너무 많아서 하나만을 선택하기는 힘들지만 노르웨이 화가 뭉크(Edvard Munch, 1863~1944)의 ‘절규(scream, 1893년작)’라는 작품이 그 중 하나라고 하면 별 의견이 없을 듯 하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를 비뚤어지고 생김이 완성되지 않은 괴물 모습의 사람이 다리 위에서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눈과 입을 크게 열고 고통을 지르는 듯 서있는 이 그림을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번



1979년 도미. 미주문학, 창조문학, 미주 《중앙일보》를 통해 등단. 현 텍사스대학 통계학과 교수.

쫓 보았을 것이다. 그 사람 뒤에는 다리를 따라 쫓아오는 듯한 두 사람의 검은 모습이 보이고 핏빛 노을이 마치 고함소리에 울리는 듯 하늘을 흐르며 드리워져 있다. 다리 아래로는 검푸른 바다가 어지럽게 흐르고 부분적으로 노을 빛을 노랗게 반사하고 있다.

‘절규’는 공포와 불안이 드리워진 이 시대를 느끼게 한다. 귀를 막은 채 눈과 입을 크게 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공포를 참지 못하고 절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픔이 너무 커서 소리조차 못 내는 상태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다. 도대체 어떤 공포이고 어떤 슬픔이길래 얼굴의 형태조차 문드러지고 소리조차 낼 수 없을까?

“어디서 우 울음소리가 드 들려/ 겨 겨 건달 수가 없어 나 난 말야/ 토 토하고 싶어 울음소리가/ 꼬 끊어질 듯 꼬 끊이지 않고/ 드 들려와...” 이렇게 시작되는 이승하 시인의 「畫家 몽크와 함께」는 폭력과 광기로 얼룩진 80년대의 한국 사회를 보며 절규하고 있다. 거대한 권력의 학살 극을 지켜보며 대항할 힘도 없는 시인의 무력한 입. 결국 말 더듬이로 변할 수 밖에 없는 시인.

“...소 소름 끼쳐 터 텅 빈 도시/ 아니 우 웃는 소리야 끝내는/ 끝내는 미 미쳐버릴지 모른다/ 우우 보트 피플이여 텅 빈 세계여/ 나는 부 부 부인할 것이다...”라며 시인은 이 그림을 시대의 광기 때문에 미치기 직전까지 절규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

허나 얼굴이 이렇게 문드러지는 슬픔이라면 말더듬이 정도로 멈추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이라면 가까운 이의 죽음이 아닐까?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믿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수많은 친구를 죽

이고 자신도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의 죽음이 마치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질 때, 너의 고통을 한번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다고 말을 하고 싶어도 들어줄 아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소리도 못 나오는 이런 절규가 나올 것 같다.

어찌 이런 거창한 사건뿐이라. 아침에 인사하고 나간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서 병원에 있으니 시체를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아 병원에서 시체를 대했을 때, 민가에 떨어진 스마트 포탄으로 일가가 몰살되고 혼자 남겨졌음을 알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고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울음이 나올 수 없다. 소리가 나올 수 없다. 텅 비어버린 세상에 죽음만이 내 가까이에서 손짓하고 있는 것을 볼 것이고 외마디 절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슴 안으로 울리고 울릴 것이다.

그래서 그 울림으로 얼굴이 형태가 일그러지고 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손으로 두 귀를 막고 초점 없는 눈으로 죽음을 보며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하지만 토한 절규는 자신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공포와 고통은 점점 커진다. 몽크의 '절규'는 이것을 그린 것이다.

소리지르며 울 수 있는 슬픔은 얼마나 부러운지, 미쳐버리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글로 쓸 수 있는 고통은 또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생각이 들곤 했다. 나의 모습도 한때 그러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글을 쓰고 있다.

연서 안의 동봉 편지

박봉진

첫사랑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앵두알을 입에 넣고 있는 것처럼 입안이 달콤했다. 그런 글을 읽어도 눈이 반짝거렸다. 내게도 풋사랑 같은 첫사랑의 추억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황순원 소설의 '소나기'에 나오는 때 묻지 않은 첫사랑이었어도 좋을 게고, 미우라 아야코의 병상에서 있었던 시한부 인생과의 애련한 사랑이었어도 괜찮았을성싶다. 그런 지순 지결한 첫사랑의 기회가 왜 나를 피해갔는지 한없이 아쉽다.

맞선 이야기만 해도 그랬다. 우리 세대는 이제 꺼내놓기 민망스러



《수필과 비평》 신인상. 재외동포문학 대상.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역임. 한국수필진흥회(에세이문학) 미주수석이사. 《수필시대》 편집위원. 한국문협 및 국제펜클럽 회원

위할 나이를 넘겨서 그럴 거다. 길을 가다 무심이 마주쳤던 사람이었거나 면접장의 수험생을 응대했던 것처럼 보따리 속에 쌓아두었던 비밀스런 것들을 낯선 사람 이야기처럼 쉽게 풀어놓곤 한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 바람맞힌 이야기와 의례적인 말 한 마디를 듣고 마음이 들떴었는데, 알고 보니 딱지였더라는 이야기도 우스갯소리처럼 털어 내놓는다.

천상의 눈길로도 내 인생의 보따리가 하도 빈약해서 무얼 하나 얹어주었던 것이었을까. 절실했던 상황이 아니었지만, 내게도 단 한 번으로 끝난 맞선이란 것이 있긴 있었다. 그때 나는 현역 군인이었고 그녀는 어느 지방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그것도 첫 대면에서 서로는 싫지 않았던지 다음 약속까지 단단히 정했었다. 그러나 그쪽 할머니가 나서서 일을 그르쳐버렸다. 할머니의 딸, 그러니까 그녀의 고모가 우리 집안의 한 어른과의 혼인이 순탄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집안에 손녀를 혼인시킬 수 없다는 왕고집에 뿌리 없는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참 애달팠다.

태연하려고 애썼지만 속은 좀 쓰렸다. 없었던 일처럼 마음정리가 거의 되었을 무렵이었다. 나에게도 제법 열을 지필 수 있는 일이 생겼다. 수취인이 실존하지 않는 편지 한통이 내 손에 들어왔다. 보낸 사람은 해군 간호장교였다. 그 시절 육군에선 그런 직급이 많았지만 공군에선 그 같은 편제는 아예 없었다. 그러나 해군에선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편제가 있었다. 내 직무상 실존하지 않는 수취인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만 했다. 그 확인서 같은 편지를 쓰면서 좀 자상스런 몇 마디를 더 얹었던 것 같다. 이어서 감사편지를 받았고 그를 계기로 계속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처음 얼마동안은 호기심에서, 그 다음부터는 조심스런 탐색으로 이어졌다. 차츰 그녀가 자랐던 동네와 집안 형편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한 꺼풀 한 꺼풀씩 마음 문을 열어갔다. 생년월일에 이어 본명의 끝 자가 “숙”임도 말해주었다. 그리 불리고 싶다는 말도 했었다. 우리는 한 도시에서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서로 나눌 공통정서의 이야기꺼리가 많았다. 그럴수록 나는 양은 냄비처럼 화들짝 달아오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기에 조금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편지 매수가 조금씩 늘어 가다가 싶더니 어느새 지질이 달라졌다. 색깔 있는 종이로 바뀌어졌다.

검부러기 불이었던 것이 모닥불이 되고, 모닥불이 타면서 이글거리는 숯불이 되면서 무쇠 가슴을 달구었다. 언제인가부터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오랜 정인처럼 서로의 이름자 앞에 친근한 형용사 하나를 더 부쳤다. 한 주일이 너무 길었다. 한 날은 어엿한 제복을 입고 좀 멋을 낸 그녀의 모습과 백의를 입은 천사의 얼굴도 함께 동봉해왔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사람이자 싶었다. 저리도 예쁜 사람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재창조된 하와의 후예일 순 없다고 생각했다. 못된 뱀에게 꼬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나는 째나는 대로 그것을 꺼내 보곤 했다. 한참 들여 보았는데도 돌아서면 또 보고 싶었다.

장작불도 한 개비로는 불이 잘 타지 않지만 두 개비가 넘으면 불꽃과 열을 내며 활활 타는 이치였을까. 우리는 그때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도, 오래 사귀어온 사람 이상으로 열을 내고 있었다. 한참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야 알았지만, 대체로 연애의 패턴은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을—. 아마 그때의 내 눈에는 무엇이 하나 씩씩워

있었을 게다. 상대방도 그랬을 것이다. 그것이 묘약이었을 터이지만.

우리는 마음부터 먼저 통했던 사이임으로 사실 서로의 외모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둘 다 건강한 신체였기에 공군과 해군으로 선발 되었을 것이고, 피차 사진까지 주고받았으니 마음만 맞으면 되는 것이었다. 드디어 만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서로의 형편을 들으며 차근차근 우리의 휴가 계획을 구체화해 가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편지도 더 자주 오갔다. 마음만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양발도 공중에 붕 떠서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하루가 열흘 같던 어느 날, 여느 때와는 달리 편지봉투가 두툼했다. 왜 일까? 부리나케 봉투를 뜯어볼 생각은 않고, 먼 하늘로 날아가는 한 떼의 새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하마터면 공중에 떠 있는 내 발이 땅바닥을 헛딛을 뻔 했다. 연인의 편지가 먼저 집혔다. 첫 장부터 느낌이 이상했다. 자주 쓰던 말을 절제한 상당히 정제되어 있는 편지였다. 다음 글을 읽다말고 그 예감은 곧 풀렸다. 옆 사람과 함께 보내는 편지인데 어찌 내밀 서러운 말을 올릴 수 있었으랴.

같은 과에 근무하고 있는 위생병에 대한 말이 들어있었다. 한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저 이웃의 호칭으로 그를 오빠라고 불러왔다는 것과 훈수 같은 말을 많이 들어 왔다고 했다. 사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고 물어서 그대로 실토했었다고 했다. 그는 깜짝 놀라며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아는 친구이니 자기 편지도 함께 넣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금세 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좀 떠벌리긴 해도 모나지는 않았던 친구이었다. 그 동창에 대한 거부감에서가 아니라 둘만의 공간에 난데없이 다른 남자가 끼어든 것이 영 꺼림직스러웠다.

왜 더 깊은 사려가 없었는지 모르겠다. 진정한 기대감이 엿보여지지 않는 것 같았다. 옛가마에 재가 뿌려지면 옛이 안 된다는데, 멀건 날에 웬 잿가루가 날까. 폭폭 압력솔에서 김빠지고 있는 소리. 동창의 투박한 편지글체엔 잘해보라는 내용을 담은 듯 했다. 그 글은 차라리 안본 것만 못했다. 웬일인지 그 편지몽치에선 연인의 편지는 조그맣게 보이고 동창의 편지만 커다랗게 보였다.

요새처럼 이메일로 사람들과 쉽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처지였으면 어쨌을까? 화상 채팅도 한다면 예민한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때 기다림의 줄을 거두어버렸으니 그리움도 견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나는 안개 속에 묻혔다가 다시 떠오르곤 하는 초록별처럼 그 육필편지를 간간이 떠올리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의 보따리에 쌓던 단 하나의 보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것을 넣어준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혹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보석을 소중히 가슴속에 묻고 있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때 참 고마웠다는 말과, 지금도 고맙다는 말을 빠트리지 않을 게다.

마음 앓을 자리

성민희

알람 설치를 하라고 만날 때마다 성화를 부리던 동생이 마음 먹고 전화를 걸어왔다. 옆집에 도둑이 들어와 옷장이며 경대며, 아이들 방 책상 서랍, 심지어 이불보까지 뜯어내어 발 디딜 틈도 없더라는 흥분된 설명 뒤에 또 당연한 잔소리를 했다. 나쁜 소문을 들어보지 못한 동네라 아직은 안심하고 살지만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다는 말이 쉽게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동생이 소개해 준 알람 회사에 연락을 했다. 금방 달려온 두 기술자가 이곳 저곳에 전선을 연결하고 똑딱거리더니, 알람을 끄고 켜고 할 때 사용할 비밀 번호를 달란다.

식구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번호 4개를 달라는데 무엇으로 해볼까?



수필 시대 등단. 재미 수필가 협회 회원. 미주 한국 문인 협회 회원

우리 집 전화 번호? 집 주소? 이것 저것 가져와 보는데, 왔다 갔다 정신 없던 남편 음력 생일이 떠올랐다. 매년 생신을 묻던 아이들의 노고도 덜어줄 겸 양력으로 정해보니 명절에 가까운 날이다. “너희들이 집을 떠나가 있더라도 잊지 말라고 비밀 번호를—” 저녁에 모인 아이들에게 생색까지 내었다. 아버지 생신을 비밀 번호로 정한 엄마의 영악한 배려를.

생일을 정해 놓고 보니 머리 속이 복잡해졌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면 다니러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버지 생신이 명절에 붙어 있으면 두 번 다니러 올 일이 한 번으로 줄어버린다는 마음과, 만약 멀리 산다면 전화 인사로 끝내기가 쉬울 텐데 그나마 연휴니까 반드시 찾아 올거란 생각과, 연휴에 묶어버리길 잘 했다는 만족감이랑 두 번 볼걸 한번만 보나 하는 아쉬움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며칠을 보냈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찾아왔다. 생각이 깊은 사람인지라 나의 심각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내심으로는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면서, “그냥 지네들 편하게 해줘라. 연휴에 잘 묵었다.” 순간 머리 속이 쨍 하고 차가워졌다. 껌등으로 듣던, 내 어머니가 친구들과 나누시던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냥 아이들 편하게 살도록 해줘라.) 많이 듣던 말이다. 자식들 이야기로 한숨을 쉬던 할머니들의 하소연 뒤에 내려지던 서러운 위안이다. 우리가 어느새 이런 위안으로 마음을 덮어야 하는 나이가 되었을까.

친구의 대답이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멋진 엄마가 된 것 같아 명쾌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아이들의 삶과 내 삶이 이렇게 철저히 분리될 수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서로 엉켜 무겁다. 주고 주고 또 주고도 더 주고 싶고, 행여 세상 찬 바람에 상처 받을까 겹겹이 팔을 벌려 덮어주던 세월은 다 지나가 버렸나 보다. 오직 그

들에게 부담이 될까 스스로 움츠리며 비껴줘야 하는 시간이 왔을 뿐.

있고 있었던 지난 9월의 서운함이 떠오른다. 뺨 속에 이상한 몽우리가 생겨서 수술을 했었다. 남편과 딸은 당연히 병원을 들락거렸지만, 필라델피아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 달려오지도 못 할텐데 괜히 마음 고생만 시키나 싶어서. 퇴원하는 날. 딸이 전화를 했다. 엄마가 수술을 했다고. 전화를 바꾸고 목소리를 듣다 보니 괜히 서러움이 북받쳐 내가 훌쩍훌쩍 울었다. 그랬더니 전화기 저쪽에서 아들도 흑흑 운다. 운동도 하면서 제발 건강 관리 잘 하라며 울음을 다듬고는 한마디 던지던 꾸지람이 고맙고 대견했다. 내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나를 보호하는 존재 같아 든든하기도 하고 녀석의 사랑이 애뜻한 것도 같아 행복했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퇴원은 잘 했는지, 상처는 잘 아물고 있는지. 전화 한 통 없었다. 어찌 이리 무심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께썸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투덜거렸더니 “당신도 인제 늙었구나. 무소식이 걱정되지 않고 서운해지기 시작하면 그건 늙었다는 신호란다.” 세상을 다 살아본 사람처럼 태연하다.

듣고 보니 그랬다. 내가 돌봐줘야 할 사람의 무소식은 당연히 염려스러울텐데 께썸한 마음이 든다는 건 상대가 나를 돌보고 있지 않다는 섭섭함 때문이겠지. 여전히 나는 앞에 서서 씩씩하게 진두지휘하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내가 전혀 느끼지도 못한 사이. 어느 새 저만큼 밀려나와 바라만 보는 자리에 앉게 되었다. 내 도움이 더 이상 도움이 아니고 간섭이 되어버린 아이들.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제 목소리로도 노래 할 수 있노라 외치는데도 나는 혼자서 그들의 튼실한 벽인양 착각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대학으로 직장으로 떠나면서부터 가끔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성(母性)을 보았다. 그건 언제 어디서나 부르는 소리에 힘

껏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자주 불려질까 자신이 없다. (그러나 영원히 불려지지 않는다 해도 녹슬거나 지치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지네들 편하게 살도록 던져두라는 말에, 관계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제는 내 마음 앓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도무지 비길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자리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

나이아가라 폭포

정순옥

엄청난 물이 낭떠러지 바위에 부딪쳐 깨어진 작은 물방울들이 이루어 낸 뽀얀 물보라 속에서, 무아경이 되는 순간은 참으로 환상적인 아름다움이다.

원더풀! 와— 참 아름답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물보라만 보이는 바람동굴 속에선 사람들의 환성도 폭포수 소리로만 들릴 뿐이다.

한 폭포로 인해 두 나라가 더욱더 친밀스럽게 보이게 하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걸쳐 있다.

수억 년 전 빙하기의 산물로 알려져 있는 이 폭포는 이리호 호수의



1978년 도미. 1989년 《중앙일보》 이민수기공모 우수상 수상. 2003년 광야 신인문학상 수필 당선.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물이 온타리오 호수로 흘러 들면서 절벽에 의해 약 50m의 낙차가 생기는데, 이 낙차가 세계 최고의 자연경관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는 거란다.

폭포 — 정상적인 강물의 흐름에서 벗어난 하나의 장애자.

장애가 클수록 그 속에서 솟어나오는 열정의 결과는 더욱더 크다는 것을 나이아가라 폭포는 보여주고 있다.

폭포수는 극심한 장애자가 토해 내는 기염(氣焰)이다.

이 기염이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감탄사를 터트리게 하고 나를 무아경에 이르게 한 신비스런 '물보라'를 창출해 낼 줄이야.

넓고 깊어서 질푸른 물만 흐르는 강일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군데 군데에 물이 아닌 흙과 바위와 나무들이 있어 작은 섬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매끄럽게 흐르는 강물이지만 이런 곳에서는 서로가 부딪쳐 상처 주지 않으려고 유연하게 굽어져서 흐르는 지혜를 강물은 알고 있다.

흐르는 똑같은 강물인데도 내적인 요소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강물, 코발트색 연초록 은빛색깔로 보이기도 하여 한 폭의 아름다운 자연 그림을 그린다. 장엄한 대자연을 감상할 수 있음에 감사해 하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을 위함같이.

강물은 살랑살랑 불어대는 강바람에 떨어진 이름 모를 꽃잎들도, 폭풍우 비바람에 꺾어진 갈대도 합류되어 흐른다.

강물 위를 나르는 물새가 찌익 갈긴 똥도 포옹하여 함께 흐른다.

죽을 힘을 다해서, 회귀본능을 발하여 강물을 거꾸로 거스러올라 가는 고기들의 찢긴 살점과 피와 떨어진 비닐들도 물살 사이에 끼어 흐른다.

강물은 아픔도 눈물도 한숨까지도 담긴 세월을 품고서,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는 또 다른 세계로 흐른다. 더 깊고 넓은 세계, 산호와

진주가 가득찬 바다를 향해서 다함께 모여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는 희망을 안고서 굽이굽이 자꾸만 흐르기만 할 뿐이다.

많은 것들로 인해 흔들리면서 강물은 흐를진데, 멀리서 바라보는 눈엔 그저 조용히 흐르는 한줄기 강물로만 보인다.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사연들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이.

높은 산 속에 있는 눈이 따뜻한 햇살에 녹아져 흘러내려 오고 있다는 추측만 있다지만, 어쩔 바다로 흘러갔던 강물이 증발하여 비가 되고 눈이 되어, 다시금 찾아왔을 강물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루어 내는 신비한 폭포.

한순간에 커다란 장애를 입어, 평음을 내며 정신을 잃어버릴 순간에 남을 기쁘게 하는 참으로 값진 일을 하고 있는 폭포.

장애를 입었기에 불품없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예술 공간이 되어 그 속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커다란 기쁨의 선물이 있음을 물보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폭포.

어느 모양으로 창조되었든지 그 안에는 세밀한 창조주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장애가 클수록 그 속에서 발하여 나오는 기쁨이 굉장함을 나이아가라 폭포는 상기시킨다.

장애를 입은 자연도 못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를 한순간이라도 무아경에 이르도록 할 정도인데, 하물며, 지극히 정성스럽게 빚어진 사람인 내가…….

청각 장애를 딛고 일어나 불멸의 아름다운 선율을 남긴 악성 베토벤의 인내 앞에 나는 부끄럽다. 선천성 사지절단이란 장애를 가지고 초등학교 교사가 된 오토다케씨가, 두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는 사랑스런 희아양이 내 가슴을 울컥 저리게 한다.

아니다, 아니야. 나도 진정 커다란 마음의 장애자다.

하이얀 물보라가 내 눈에 가득 찼을 때, 두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물보라에서 튕겨나온 물방울인지, 눈에서 흘러나온 눈물인지 모를 물기를 닦기 위해서.

평탄하게 흐르던 강물이 절벽에서 그냥 땅으로 떨어져버리는 낙수가 아니라,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장애자가 된 순간에, 역사를 간섭하시고 조정하시는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태어난 물보라.

장애가 되어 불행한 것 같으나 오히려 한없이 위장된 축복을 받은 폭포.

신묘한 창조의 비밀을 무언으로 나타내 주는 물보라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본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물보라를 통해서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나이가가라 폭포에,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활짝 퍼져 있음에 내 가슴이 뒹다.

표현할 수 없이 큰 마음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나이기에, 내가 그 곳에 있음을 안다.

약속의 언약 성취인, 무지개가 떠있는 나이가가라 폭포의 물보라 속에.

유월을 보내며

정옥희

수영장 가의 그네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바람이 살갓을 스치고 지나간다. 바람 탓인가 하늘이 흔들리고 있다. 200년은 족히 넘었음직한 뜰 안의 물푸레나무 잎사귀들이 제각기 다른 형태로 흔들리고 있다. 바람은 무형이나 사물의 형태를 만드는 요술을 부릴 줄 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며 세월은 유월을 보내고 있다.

시(詩)가 저절로 내 입에서 흘러 나온다.

신석정의 「작은 짐승」이다.

蘭이와 나는 /산에서 바다를 바라다 보는 것이 좋았다/ 밤나무 소나무



미주 《문학세계》 수필 당선, 본국 《에세이문학》(수필공원) 추천완료.
저서로는 수필집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는 마을』, 『로우링 힐스의 여인들』, 『언덕 위의 마을』이 있다.

참나무 느티나무/다문다문 선 사이로 바다는 하늘보다 푸르렀다.

蘭이와 나는 작은 짐승처럼 앉아서 바다를 바라다 보는 것이 좋았다/
짐승같이 말없이 앉아서 /바다를 바라다 보는 것은 기쁜 일이었다.

蘭이와 내가/푸른 바다를 향하고 구름이 자꾸만 놓아가는 붉은 산호와
흰 대리석 층층계를 지나며 물오리처럼 떠다니는 청자빛 섬을 어르만질
때 떨리는 심장같이 자즈러지게 훑날리는 느티나무 잎새가 蘭이의 머릿
칼에 매달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蘭이와 나는 역시 느티나무 아래에 말없이 앉아서/바다를 바라보는 순
하디 순한 작은 짐승이었다.

내 앞에 출랑출랑 물살이 지고 있는 수영장 물이 내 눈에는 서해의
대천바다같이도 느껴지고 동해의 경포대 십리바위가 되기도 한다.
이 시가 너무 좋아서 나는 내 학생들에게 무조건 암송하라고 일르곤
했었다. 시는 여럿이 함께 소리내서 암송할 때 가장 시인의 감정에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다. 특히 3연의 “심장같이 자즈러지게 훑날리
는 느티나무 잎새가 난이의 머릿칼에 매달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의 대목에서는 지금도 내 심장이 자즈러지도록 희열을 느낀다. 오늘
도 내 머리에는 핀처럼 나뭇잎이 내려와 꽃혀지고 어느새 내 손은 물
푸레나무 잎새를 뱅글뱅글 돌리고 있었다.

유월의 하늘을 올려다 보며 나는 또 하나의 싹귀를 떠올린다. 엇그
제 아버지 날이 지난 까닭인가.

박두진의 「철죽꽃이 필 때면」이 생각한다.

철죽꽃이 필 때면/ 철죽꽃이 환하게 피어날 때면 / 나는 아버지가 못견
디게 생각한다.

(중간 연은 잊어버려서 건너 뛴다.)

천변길을 밤늦게 돌아오느라/ “거, 두진이나” 커다랗게 불러주시던/
어릴 때의 아버지/유월은 가신 달/ 흰 달도 철죽꽃도 피어 있는데/ 어디
가셨나. 큰 기침 하시며 어디 가셨나.

요사이 아버지를 세워야 집안이 산다는 댁글자가 자주 눈에 들어
오는데 나는 이 말이 왜 사회적으로 거론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어
릴 때는 개인사업을 하신 아버지가 통지표 받아오는 날 일찍 집에 들
어오셔서 너만 잘하면 되냐. 왜 언니로서 동생을 봐주지 않았느냐고
같이 얻어 맞곤 했다. 그런 아버지가 참 싫었었다.

아버지가 다시 사무실로 나가신 후 너 때문에 얻어맞았다고 동생
의 등을 때리고 밀쳤는데 동생이 비행기를 탄 듯 날아 댁돌로 굴러떨
어지며 뺨과 손바닥이 심히 까진 일이 있다. 불쌍하고 가엾고 마음이
아파서 ‘아까장기(마큐롬)’약을 발라주며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니?
병신같이…….” 했다. 내 똥보동생은 그날 아버지께 그 일을 일러바
치지 않았었다. 지금도 그 일이 떠오르면 나는 전화를 든다. “진아,
잘 있냐?” 하고, 사죄하는 마음일 것이다. 이렇듯 내 아버지가 매를
자주 드신 분이긴 해도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가 귀한 분이고 어려운,
절대적인 존재라는 생각은 이제금 변하지 않는다.

이 시를 읊다보면 한 폭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하늘에는 초승
달이건 그믐달이건 달이 가늘게 떠있고 개울물소리가 졸졸 흐르는
천변가에 나와서서 늦게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의
모습이 달빛에 어렴풋이 보이자 “거, 아들이냐?” 하신 아버지. 이 시
는 이 대목이 늘 눈시울을 뜨겁게 해준다. 아마 아들 박두진 시인은
“아버지, 나와 계셨어요?” 하고 황송하면서도 얼마나 아버지가 든든
하고 미더웠을까. 나도 아버지가 고금얹이로 열에 들떠있을 때 금계
랍(키니네)을 엿에 박아서 손수 먹여주시지 않았는가. 내가 아는 모든

아버지는 대들보같이 위엄이 있었다. 이 시를 읊을 때마다 나도 아버지가 못견디게 그리워진다.

고원 시인의 시 중에 「물길」이라는 시가 있다. 나는 이 시를 눈으로 읽지 않는다. 가슴으로 읊는다.

항상 목이 말라서/ 찬물 좀 달라 하시더니/ 물을 더듬다가 온 몸이 젖어/
/그대로 영영 가신 어머니.

모실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면/물길밖에 없었나 봅니다./ 양손잡이 쇠
지팡이 힘을 풀고/몸이 없는 물, 정수에 합쳐/훨훨 나가시는 걸음걸음/백
발번뇌 씻으시게/제 욕심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 봄날 부슬비가 내리데요/ 뉴욕의 아침 ‘흰 돌다리’ 그윽한 아래/
햇슨강이 맑기도 하데요/제단이 된 반석 속으로/염불소리 방울소리 스며
들자/강물이 찰랑찰랑 새 길을 열데요.

(너무 슬퍼서 중략)

어머니, 이제는/다녀오지 않고/강을 따라 흐르는 제 머리에/여전히 부
슬부슬 비가 오네요/어머니가 오시네요/오시는가요/가시는가요.

물길 사십구만리

오시는가요.

가시는가요.

내가 이 시를 좋아해서 중얼중얼 읽는 까닭은 “부슬비가 내리데요.
/ 맑기도 하데요./ 길을 열데요./ 비가 오네요.”하는 대목이다. 고해
성사하듯 하는 표현이 늘 나를 울리기 때문이다. 눈물로 가득 찬 시
인의 동공에 어디 슬픔을 담을 여지가 남아 있었겠는가. 멍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속깊은 슬픔이 내게 와닿는 것은 나도 어머니를 잃어버
린 슬픔을 아직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이어서이다.

나는 고원 시인의 시대의 흐름이나 정치적인 색채가 담긴 시를 좋아하지 않는다. 「달마당」을 달달 읽다.

달드는 뜨락/ 환한 정에/ 바람이 살살 빨려들고
사람가슴 비다 비다/ 아주 비면/ 폭 패어서/ 달 드는 마당.

참 좋은 시다. 세 딸아이가 빨아먹고 남은 내 젖가슴은 증거물로 꼭지만 남긴 채 헌 버선짝이 되었다. 그런데 내 가슴을 빨며 뺏히 어미 얼굴을 올려다 보고 낮을 익히던 딸 셋은 모두 이 사회에서 대접 받는 소중한 인물들이 되었다.

사람 가슴은 다 주고 주고 비고 비고 아주 폭 패인 가슴이 허전하 기만 할까? 아니지. 달이 들지. 사랑이 들지. 인연이 들지. 자리가 비었으니 무엇이든지 채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폭 패인 가슴에 사위 셋이 들어와 앉았다. 손녀 둘 손자 둘이 들어와 앉았다.

꽤 오래 전에 얼마간 고원시인의 강의를 들은 일이 있다. 어느 날 내 고향이 평북 신의주라는 말을 들은 시인이 “내 첫 번 째 انسان도 신의주 사람이었는데” 했다. 그때 나는 무심코 그 말을 들었으나 불면 날아갈까 지금의 부인을 그토록 사랑하는 고원시인의 아주아주 깊은 어느 곳에 옛사람을 묻어놓고 사는 것이 고원시인이 아닐까.

장사익의 노래처럼 한번 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후회가 없다. 시를 읊으며 사는 일은 인생을 노래하며 사는 것과 같아서 사치스럽기까지 한다. 바람이 후우이 지나간다. 6월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

달빛 사랑

지희선

달이 따라오고 있었다. 비에 씻기운 듯 맑고 밝은 달이었다. 달빛 아래 잠든 산마을 집들은 부드러운 형광빛에 싸여 신비롭게 보였다.

‘오늘이 보름인가?’ 혼자말처럼 뱉었다. 묵묵히 운전을 하고 가던 남편이 그럴거라며 짧게 받았다. 언제나 단답식으로 말하는 남편이 오늘따라 더욱 무드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늘은 그 단답식 대답도 별로 밍지가 않다. 달빛을 받으며 달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으랴. 오히려 ‘느낌’만이 소중한 시간인 지도 모른다. 의자를 뒤로 뺀 뒤 다리까지 쭉 뻗었다. 다리를 쭉 뻗는다는 것은, 달과 함께 좀 길게 놀아보겠다는 심사다.



1995년 《문학세계》 수필 신인상. 1997년 《수필과 비평》 수필 신인상. 1999년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수필 당선. 1999년 《현대시조》 신인상. 재미수필가협회, 미주시조협회 회원.

높이 뜬 보름달은 날 잘 따르는 우리 집 강아지처럼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으면서 계속 따라 왔다. 내 눈도 달을 따라간다. 나와 눈맞춤한 달은 어느새 내 마음까지 앗아가 버렸다. 이젠 달이 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을 따라가는 셈이 되었다. LA 다운타운에서 내가 사는 리틀락까지는 장장 80마일. 호젓한 밤길이라 빨리 달려도 죽히 한 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다. 한 시간의 데이트. 별로 나쁘지 않다.

한 때는, “고작 한 시간!”하고 토라져서 아예 만남 자체를 거부한 적도 있었다. “먼 길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단 오분만이라도 뵙고 싶었습니다”라는 편지를 받고서야, 유아적인 나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꼈었다. 내 젊은 날, 연인과의 한 시간은 너무 짧게 생각되었다. 지금이야말로 나 역시 만날 수만 있다면 단 오분만이라도 만나고 싶다. 만나서, 부끄러웠던 일, 미안했던 일 다 용서 받고 싶다. 하지만, 저 달은 떠올라 옛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는 꿈에서 조차 찾아주지 않는다. 꿈길에서도 어긋나는 걸 보니, 흘러가 버린 세월만큼이나 먼 길로 떠났나 보다. 이젠 삼십 년이 다 된 이야기다.

휘영청 높이 뜬 달은 여전히 유정하고 낭만적이다. 눈부시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끌어당기는 달빛 사랑은 상당히 은유적이다. 현란한 네온 사랑이 아니라, 은은한 형광 불빛 사랑이라 좋다. ‘침묵 속의 공감’만으로도 마음에 물무늬 지는 사랑. 이런 사랑을 잠시 꿈꿔 보는 것도 달밤 아래서는 무죄가 될 것 같다. 둥근 보름달은 생긴 그대로 우리 마음을 둥글둥글하게 해 준다. 사랑도 미움도 그저 둥글둥글하게 생각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밝아지리라 한다.

프리웨이를 달리며 구불구불 산길을 돌 때마다 오른 쪽 왼쪽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달이 재미있다. 맑은 얼굴에 얼비치는 옥토끼는 오늘도 많은 동화를 지어내고 있을까. 골짜구니에 서리서리 어린 이야

기는 장편 소설로도 모자라 한숨 짓고 있을지도 모르지. 한 마디 말도 없이 우리를 미소짓게 하고, 눈물샘 없이도 눈물 짓게 하는 저 달. 나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저 달 보고 웃는 사람, 저 달 보고 우는 사람, 서울의 지붕 밑에…….” 그 다음 가사는 생각이 나지 않아 허밍으로 대신했다. 그런데 가사 내용 때문일까. 아니면, 달이 주는 감상 때문일까. 괜히 쓸쓸한 기분이 들어 노래소리는 잦아들고 생각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달을 보고 울었을까. 윤오영 선생의 「달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장기려 박사의 「달님」이 들어섰다. 인술로도 유명하지만, 사십 평생 북에 두고 온 아내를 잊지 못하는 그의 순애보가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언젠가 장기려 박사와 김동길 박사가 미국에 왔었다. 그 날밤도 보름달이 떴었나 보다. 장기려 박사는 습관처럼 달을 올려다 보고 있었다. 김동길 박사가 넌지시 다가와 달이 참 밝지요 하고 말을 건넸다. 그때 장기려 박사는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국에서 보는 달은 재미가 없으이. 하루가 틀리니, 북에서 저 달을 보고 있는 내 아내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는 달이 아니잖어. 아내가 보는 달 하고 같은 달이 아니니까 재미없어.” 독백처럼 뱉는 말에 그의 속울음이 들리는 듯 하여 김동길 교수도 할 말을 잊었다고 했다. 이북에서도 아내가 저 달을 보고 있을 거라는 믿음. 허망한 믿음일 수도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힘이 되었으리라.

똑 같은 달이라도 똑 같지 않은 달이 누군가의 가슴에 있다. 오늘 의 달을 보며 어제의 달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고, 아꼈던 지난 날이 생각나 다시 눈물 짓는 사람도 있으리라. ‘저 달 보고 웃던 사람, 저 달 보고 울던 사람’은 서울의 지붕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LA 하늘 밑에도 무수히 있겠지. 하물며 물 설고 말이 선 이 곳

에서의 외로움이나 어려움을 달 외에 누구 한테 털어놓을 수 있으랴. 운전대에 이마를 짚으며 흐느끼는 사람도 달을 보며 울고, 개나 늑대도 달을 보며 사연 있는 울음을 운다. 달은 이 모든 사연을 가슴으로 받고 함께 아파한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은빛 자락으로 우리의 이마를 쓰다듬어주는 일 뿐. 달이 잠들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나 또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딸과 함께 울었던가. “우리, 이렇게 살려고 미국에 온 거 아니잖아?” 하며 딸을 부둥켜 안고 울 때마다 달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울어지쳐 잠든 딸 이마 위로 가만히 내려앉던 은빛 달빛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밖에 없다고 타이르던 달빛 은유. 그 은은한 형광빛 타이름에 나는 또 한번 울었었다. ‘미움으로 흘리는 눈물은 없다’고 오늘날 보름달은 다시 한번 내게 일러준다.

팜쥬리 잎새 위에 걸린 보름달도 소나무 위에 걸려있던 고향의 보름달 못지 않게 포근하고 운치가 있다. 노래를 부르고 싶다. 어제의 일은 어제의 바람이 다 쓸어갔겠지. 내일은 또 내일의 바람이 불겠지. 허밍으로 부르는 노사연의 〈님 그림자〉가 리틀락의 밤하늘에 조용히 퍼져나간다.

너와 나의 눈물

최미자

요즈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여간 심상치가 않다. 이상한 기후를 분간할 수 없어 계절이 지난 옷들을 다시 꺼내 바꿔 입곤 한다. 지구만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빨라진 세상과 급변해 버린 문명 앞에 우리 모두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며 마음의 병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것 같다. 오래 전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고들 좋아했지만 날마다 전해오는 뉴스는 끔직하고 잔혹하기만 하다.

2007년 4월 16일 월요일 아침. 우체국을 향해 운전하고 가던 자동차 안이었다. 우리 일상의 건전한 삶을 안내하는 교육방송(KPBS) 라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과 졸업, 《현대문예》와 《수필시대》에서 수필 작품 신인상. 미주한국문인협회, 재미수필문학가 협회 회원. 월간지 《피플 오브 샌디에이고》 주필 역임. 월간지 《미주현대불교》 편집고문. 저서로는 『레몬향기처럼』이 있다.

디오를 나는 즐겨 듣는다. 버지니아 공대(Verginia Tech)의 총격살인으로 33명이 다치고 상해를 입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다. 다음 날 소식으로, 8살 때 한국으로부터 이민 온 한국남자가 범인이라 한다. 같은 동족이라서인지 내 가족의 일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유족들을 생각하니 분노와 죄인 같은 수치심으로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왜? 하필이면 사람을 만드는 지성적인 교육의 전당이였을까! 미국에 온 지 15년이 지난 영주권자, 23살의 영문과 4학년 학생 조성희라고 아나운서는 범인에 대하여 자상하게 소개했다. 뉴스에 이어서 계속 이 총기사건을 분석하는 좌담회가 날마다 열렸다. 아시안 부모들은 교육열정도 대단하지만, 대부분 자녀들에게 일류 학교와 직업을 요구하며 강박감을 주고 있다는 여론들도 나왔다. 사실 많은 한인 부모들은 “너희들 때문에 이민 왔다.”라는 말들을 해 왔다. 그리고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인간적인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지나치게 일하고 미래의 재산을 늘리기에 분주하다.

나의 이민초기, 미국 학교에서 일하는 동안 개성을 존중하고 개발하는 교육방법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다. 마치 기계로 찍어내는 듯이 지식만을 지향하는 한국의 교육과정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부모들처럼 지나친 과외공부도 강제로 시키지 않았다. 미국의 학교생활만 잘 활용해도 나름대로 좋은 대학교에 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올바른 의지만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라고 생각된다. 결혼 가정의 말썽꾸러기들을 돕기 위하여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있고 교장과 교감선생님이 선도를 한다. 나는 공부를 싫어하는 말썽꾸러기 중학생들을 도와주는 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그런 문제 아이들의 가정배경은 어떠한지 늘 걱정스럽고 궁금했었다. 미래의

우리 세상을 짊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버지니아 텍의 살상사건은 우리 어른들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삶의 갈등 중에서도 분노를 잘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나운서는 작은 반도의 나라 한국이 각 분야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인 청년 살인자에 대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한국교민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들에게 인터뷰를 청했지만 대부분 수줍어하며 도망을 쳤다고 아나운서는 설명했다. 다행히 영어를 하는 몇 한인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한 한국여성은 ‘조성희’라고 한국식으로 말하지 말고 미국식으로 ‘성희조’라고 미디어가 시정해야 한다고 날카로운 지적도 했다.

사흘이 지나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두 살 위의 누나(조선경)가 가족으로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침착한 그의 글귀들이 가슴 아팠다. 9·11 테러 뉴욕참사 때도 부지런한 사람들을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리스트가 한없이 미웠다.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어찌 버지니아 공대뿐일까? 지금도 이라크에서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인명들이 전쟁과 자살폭탄이라는 이름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면 우린 함께 운다. 너와 나의 눈물이기에.

덴버의 콜롬방 고등학교 학생이 선생님과 동료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모방하는 듯. 아니면 성스러운 순례자의 리더쉽을 흉내 내는 듯. 한인 1·5세의 잔혹함에 나도 치를 떨었다. 다행히 17개월 전부터 정신병이 있었다는 병적 기록이 나와서 그나마 조금 안도의 숨을 쉬었다. 또한 미디어들도 인종편견으로는 몰고 가지는 않았다. 날마다 “언제까지 사람을 죽이는 충기를 이렇게 방치할 것인가!”라며 미국국민들은 목청을 높였다. 전반적인 자녀 교육문제와 충기문제로 다루었다. ‘Stop Gun Violence’과 ‘Gun Control’, ‘Gun Culture

in America'에 대하여 분노했다. 'Shameful, Sinful, Hopeless'라고 일주일 내내 라디오에서는 사망자들에 대한 슬픈 사연들이 흘러나왔다. 나의 좋은 미국인 이웃도 일부러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서 한 청년의 개인적 문제이지 한국인인 내가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라며 다정하게 위로의 말을 보냈다.

한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도 안심하고 다닐 수가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지성을 토론하며 학문을 배우던 교수와 학생들이 폐죽음을 당한 억울한 명령들을 우린 무어라고 위로할 수가 있을까. 안타까워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눈물이 연일 흘러내렸다. 9·11 테러 때도 나는 날마다 그들의 천도를 위해 간절히 울먹이며 기도했었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꿈도 꾸었다. 넓은 빌딩 옥상 위에 하얀 칸막이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 꿈속에서 돌아가신 나의 외숙모와 조카도 보였다. 연꽃이 피어 있던 파란 연못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잠에서 깨어 보니 아마도 뉴욕테러의 희생자들 같았다. 신기한 꿈이어서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다.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순간의 지혜를 발휘해서 수 십 명의 목숨을 건져 냈다던 공과대학생의 이야기랑. 유태인 학살에서도 살아나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열정을 바치던 리브레스 쿠 교수의 제자 사랑 이야기랑 눈물겹다. 모두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될 아까운 사람들이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인재의 손실인가.

폭력적인 영화와 인터넷의 무분별한 영상들을 날마다 보며 자라는 우리 아이들. 자기만의 영욕을 채우려는 부도덕한 기업인들. 비도덕적인 세상 앞에 무감각한 우리들. 우리의 삶은 결코 개인적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어찌 희생자들만의 아픔이리요. 너와 나의 눈물인 것을!

어릴 적부터 내성적이었던 어느 조용한 소년이 무서운 마음의 병을 차츰 심하게 앓아갔건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몰랐다니. 대학교 영어시간에 조군의 잔인한 영작문을 읽은 담당교수가 그의 정신건강을 걱정했었기에 대형 참사를 예방할 기회마저 놓쳐버렸다면 후회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날마다 주변의 우리 아이들에게 따스한 관심과 사랑의 눈길을 보내야 한다.

일주일이 지나고 새로 시작되는 4월 23일 월요일, 애절한 서른 두 번의 조종 소리가 또 라디오를 통해서 중계되었다. 살인자와 희생자들을 상징한 32개의 흰 풍선을 하늘로 띄워 보내며 살아있는 사람들은 너그럽게 살인자마저 함께 용서했다. 이래서 미국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위대한 나라인지도 모른다. 희생자를 돕는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사기꾼이 나타나 악용하려하니 조심하라는 경고문을 학교 당국에서 알리고 있다.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다.